____월 ____일

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은 뒤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 그리고 외워 보세요.

조근호, 『오늘의 행복을 오늘 알 수 있다면』

출처: 21세기북스

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.
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,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.

마루야마 겐지

출처: 조선일보 2017년 8월 18일 [어수웅의 Dear 라이터]

뭔가를 이루고 싶다면,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.
가족, 직장, 나라에 의존하며 살다보면, 내가 왜 사는지,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.

헤르만 헤세, 『데미안』

출처: 조선일보 2017년 10월 20일

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. 알은 세계다.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.
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.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.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